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현판식 개최 게재 뉴스클리핑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18.02.28>

□ 보도 결과(6개 매체, 7건 기사)

No	매 체 명	날짜	제 목	형태
1	머니투데이	2월 27일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으로 새 간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2404010277240	지면/온라인
2	디지털타임스	2월 27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현판식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80227190300013&input=1196m	지면/온라인
3	연합뉴스	2월 27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내 대표 연구기관과 MOU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80227190400013&input=1196m	온라인
4		2월 27일	축사하는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80227190600013&input=1196m	온라인
5	한국일보	2월 27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현판식 http://www.hankookilbo.com/v/ac57898e8021427fbde8d94295fba74c	온라인
6	헬로디디	2월 27일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으로 재탄생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64244	온라인
7	뉴시스	2월 28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현판식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228_0013858786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228_0013858788	온라인
		2월 28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국내 대표 연구기관과 MOU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228_0013858787	온라인

□ 지면 기사 스크랩

디지털타임스

2018년 02월 27일
09면 (경제)

"창업 연구하는 실험실"… 과기 일자리창출 총력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명칭변경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도약
바이오·나노분야 집중지원 계획

#이문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팀은 2013년 근접거리에서 기가급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차세대 초고속 근접통신기술인 '징(ZING)'을 개발했다. 징의 상용화를 추진하던 연구팀은 사업화 파트너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칩 모듈 전문개발기업 '지앨에스'를 설립, 12명의 신규 인력 고용과 5억원의 엔젤투자자 유치에 성공했다.

기초·원천 연구개발(R&D)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인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원장 조용범)은 기관명칭을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으로 변경하고 27일 현판식을 개최한다.

현판식에는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비롯해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원장(원장 직무대행), 김용진 재료연구소 부소장, 박병철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정진교 코스닥협회 상무이사, 송진규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부회장, 김영범 아이피온 CEO 등이 참석한다.

일자리진흥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대학 등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각종 지원 활동을 수행해왔다. 일자리진흥원의 새로운 출범은 위 사례와 같이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앞으로 진흥원은 '실험실, 창업을 연구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모든 역량을 연구성과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과제관리 위주의 에이전시 기관에서 탈피해 R&D 단계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특히 시장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바이오·나노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진흥원은 이날 행사에서 '바이오·나노 분야 실험실 일자리 창출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바이오와 나노 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및 재료연구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남도영 기자 namdo0@

(17.1*11.2)cm

머니투데이

2018년 02월 27일
17면 (IT,과학)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으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개명

기초·원천 R&D(연구·개발) 기술사업화를 지원해온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 27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진흥원은 새 정부 들어 R&D시장 성장 가능성 분석,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등으로 업무영역을 넓히고 전문인력도 확충했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라는 새 기관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자리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담았다고 진흥원 측은 설명했다.

진흥원은 이번 개명을 계기로 시장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서비스가 나오도록 코디네이터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화 성공시 우수성과가 기대되는 바이오·나노분야부터 집중 지원키로 했다. 바이오분야의 경우 실험실 단위에서 어려운 기술사업화, 신뢰성 검증을 위한 인허가 컨설팅, 비임상시험 등 기술검증을 지원한다. 나노분야는 연구직 일자리가 전체 나노산업분야의 16%를 차지하는 만큼 R&D직, 기획관리직, 생산관리직 등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진흥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R&D로 창출된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에 공을 들이며 고용창출 성과를 거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문식 박사팀은 2013년 1GB(기가바이트) 영화 1편을 3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가급 초고속 근접통신기술 '징'(ZING)을 개발, 상용화를 추진했지만 사업파트너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진흥원은 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할 경우 민간기업 기술이전보다 연구소 기업 창업이 더 낫다는 컨설팅 결과를 이 박사팀에 제시했다. 이에 이 박사팀은 칩 모듈 전문개발기업 '지앨에스'를 설립, 12명의 신규인력 고용과 함께 5억원의 엔젤투자를 유치했다. 조용범 원장은 "'실험실, 창업을 연구합니다'라는 새 슬로건 아래 모든 역량을 R&D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류준영 기자 joon@

(23.4*6.9)cm